

#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군산시, 8월 1일까지 거리두기 강화... 도내 4개 지역서

19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군산을 포함한 도내 4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다.

이날 김임준 군산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군산, 전주, 익산, 완주혁신 도시 등 4개 지역에서 2단계 +α(사적모임 4명까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일부터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날 총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방문자 및 내방객을 통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

사과 집회가 금지되고 몰라텍, 무도장 등 유흥시설의 경우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24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의 경우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며 소규모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김 시장은 "더 큰 피해와 희생을 막기 위해 비상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수도권 등 타지역을 방문하는 일을 멈춰주시고 특히 친척과 가족 등 지인들이 수도관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OPEN BOX(대표 전지명)와 행복나눔 공유공간 사업의 원활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행복나눔 공유공간' 업무협약

### 나운2동, 지사보험과 저소득층 위해 품목·규모 확대 체결

군산시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OPEN BOX(대표 전지명)와 행복나눔 공유공간 사업의 원활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OPEN BOX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식생활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 식품과 생활용품을 연중 수시로 기부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품목과 규모 또한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지명 대표는 "주변에 생계 위기로 어려움에 놓인 이웃들이 많은데 나운2동의 행복나눔 공유공간과 같은 나눔 공동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상관 민간위원장은 "공유공간 사업에 나눔을 실천하는 OPEN BOX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나운2동을 만들기 위해 기부된 식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나눔 공유공간 사업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공유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웃이 서로 돕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마련된 사랑나눔 프로젝트다. /군산=남현봉 기자

이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지역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상관 민간위원장은 "공유공간 사업에 나눔을 실천하는 OPEN BOX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나운2동을 만들기 위해 기부된 식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나눔 공유공간 사업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공유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웃이 서로 돕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마련된 사랑나눔 프로젝트다. /군산=남현봉 기자



## 전북은행, 익산시에 '수해복구 특별성금' 1000만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익산시에 수해복구를 위한 특별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해 큰 어려움을 겪는 익산시 중앙동 일대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빠른 수해복구를 통해 지역사회에 희망이 더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고찬배 익산지역금융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특별성금은 현재 익산시와 공동으로 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중앙·매일시장 등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빠른 피해복구와 일상회복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군산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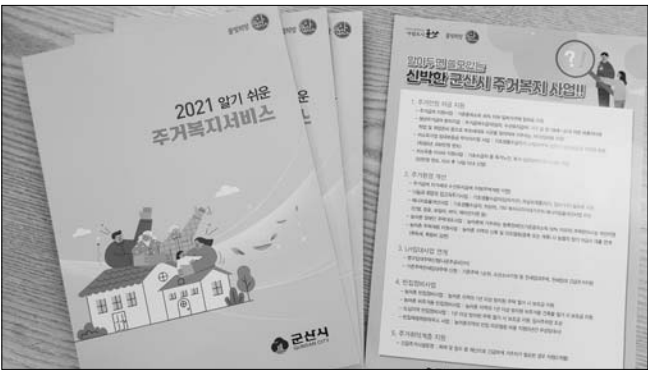
### 알기쉬운 주거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상담창구 운영 예정

군산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주거복지사업 홍보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도 주거복지시책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알기쉬운 주거복지 서비스' 책자와 주거복지 홍보전단지 제작해 읍·면·동 및 복지관련 기관에 배부한다.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군산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주거복지사업 홍보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 운영 중인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와 연계해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이 주로 거주하는 나운동과 소룡동의 30년 이상

의 소규모 공동주택 43개 단지에 주거복지사업 홍보전단 배부해 누수 없는 주거복지를 실천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시,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공모 선정

군산시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와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공모사업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내홍동 오션클래스 아파트 내 조성하게되는 2호점은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 민간협력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사업을 신청했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로 선정, 사업비 6천여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올해 안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해 돌봄장소 제공, 놀이체험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외에도 TV, 데스크탑 등 필요한 기자재도 함께 지원돼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됐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자녀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방과 후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으로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운동 늘푸른도서관 내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466-7337)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침수피해 상가 돕기 '희망장터' 연장 운영

익산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중앙동 상인들을 위해 진행 중인 '희망 장터'를 연장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당초 1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희망 장터의 운영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수해 지역민을 위해 마련된 이 장터는 지난 10일부터 중앙동 일원에서 피해상가 2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희망장터 운영 기간 동안 제공되는 디이로움 플러스 혜택 이벤트도 전개한다.

해당 상가에서 지역화폐인 디이로움 카드에 결제 시 연중 20% 혜택과 함께 피해지역 상가 이용 10% 지원금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이용자는 총 3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행사의 시민 참여와 공무원들을 포함한 유관기관 직원들이 이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김재훈기자

### 군산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신규 개원

군산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오션클래스 개원을 시작으로 나란하어린이집 및 레비뉴어린이집을 오는 8월과 9월에 순차적으로 신규 개원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영유아의 안전한 환경과 쾌적한 보육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기자재 및 교재교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해 심사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개원으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이 19개소(1342명)에서 22개소로 확대되며 보육 정원도 150여명이 증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부모·영유아·교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